

제주 방언의 장형 부정문 소고

문 순 덕*

— 차 례 —

1. 서 론
2.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의 특성
3. 부정 서술어 '못하다'의 특성
4. 부정 보문소 '-지'의 통사 기능
5. '하다'의 문법 기능
6. 부정의 범위
7. 결 론

1. 서 론

표준어 부정법에서 논쟁의 대상이 된 것은 하나의 긍정문¹⁾에 대응하는 부정문이 두 가지로 실현되는 데 있다. 그래서 단형 부정문과 장형 부정문을 동일 구조로 볼 것인가의 여부²⁾, 두 부정문의 의미가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 1) 학자에 따라서 부정소 '아니, 못'이 쓰인 부정문을 단형 부정, I형 부정, 제1형 부정, 선행 부정, 단문 부정이라 하고,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 '못하다', '말다'에 의한 부정문을 장형 부정, II형 부정, 제2형 부정, 후행 부정, 복문 부정 등으로 부르는데, 이 글에서는 전자를 단형 부정문, 후자를 장형 부정문이라 부르고자 한다.
- 2) 표준어 부정문에서 우선 두 부정문의 기저 구조 설정이 논의되어 왔다. 즉 부정소 '아니'와 '못'이 동사 앞에 오는 단형 부정문과, 동사 뒤에 위치해서 포괄동사 '하다'와 결합하는 장형 부정문이 있는데, 이들이 동일한 기저 구조에서 나온다는 일원론과 그 기저 구조가 다르다는 이원론이 대립되었다. 일원론(박순함 1967, 이흥배 1970, 오준규 1971, 서정수 1974, 이기용 1979, 김동식 1980)은 두 유형이 한 긍정문에 대응되는 동의문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는 표면 구조가 다른 두 문장이라 해도 그

동일한가의 여부, 장형 부정문에 나타나는 보문소 '-지'와 명사화소 '-기'의 동일 기원설, 포괄동사 '하다³⁾'의 문법적인 기능 등 다양한 논쟁거리가 있어 왔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여러 문제가 제주 방언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장형 부정문은 부정소⁴⁾ '아니'와 '못'에 '하다'가 통합된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와 '못하다'가 보문소 '-지'와 함께 쓰인다. 단형 부정문은 후행 요소의 선택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통사상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문장을 표현할 수 있는 장형 부정문이 출현했다고 생각되며, 이미 중세 국어에서부터 두 유형의 부정문이⁵⁾ 보편

들이 동의라면, 동일한 기저 구조에서 형성된다는 논리에 따라 당연히 기저 구조가 같아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에 비해 이원론(송석중 1967, 임흥빈 1973, 1978)은 우선 통사 구조의 상이성에 따른 의미상의 차이에 두었다. 즉 두 부정문의 기저 구조가 다르다고 보는 입장이다. 일원론은 문제가 안되는데, 이원론인 경우 단형 부정문은 동사만 부정되고, 장형 부정문은 복문이며 문장 전체가 부정되어서 중의성을 띤다는 입장이지만, 두 부정문 모두 중의성을 띤다. 임흥빈(1973)과 송석중(1967)은 중의성을 띤다는 입장에서 일원론을 반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원론의 입장에서 두 부정문은 동일한 기저 구조와 의미를 갖는다는 전제하에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3) 보통 '하다'는 형식동사와 대동사, 보조동사, 접사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먹기는 한다"에 쓰인 '하다'와, 부정소 '아니', '못'과 결합하는 '하다', 파생접사로 기능하는 '하다' 등이 있다. 이러한 "하다"의 기능 또는 의미에 따라 붙여진 명칭이다. 김영희(1984: 43)은 "하다"를 대동사가 아니라 실질 동사의 상위어인 '포괄동사'로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는 '포괄동사'라 Tm고자 한다. 왜냐하면 '하다'는 일반 동사이며 어근으로써 부정소 '아니', '못'과 통합하여 합성어가 된다. 즉 '아니하다', '못하다'는 합성어이며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물론 부정 서술어로 쓰인 '하다'는 의미 기능이 약하기는 하지만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없다.
- 4) 문순덕(1998)에서 '아니'의 기본 의미는 '단순 부정'으로, 부정소 '못'의 기본 의미는 '타의 부정'으로 정의했다. 따라서 장형 부정문에 쓰인 부정소 '아니', '못'의 기본 의미도 같다는 전제하에 논의를 전개하겠다.
- 5) 박병채(1989: 199), 황병순(1980: 126)에 의하면, 단형 부정문은 본래부

화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글에 쓰인 방언 자료는 연령층이 높을수록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연령층이 낮을수록 표준어 교육을 받은 세대로 내려올수록 잘 쓰지 않는 표현도 있다. 그러나 제주 방언의 본래 모습을 통해서 부정 표현을 찾아 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과거에 주로 사용하던 문장을 자료로 활용했다.

2.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의 특성

표준어와 마찬가지로 제주 방언도 부정문의 두 유형의 기저 구조는 동일한 데(보기 1), 장형 부정문은 부정소가 동사 뒤로 이동되고 포괄동사 '하다'와 결합되어서 성립하며, 부정 보문소 '-지'는 장형 부정문인 경우 그 선택이 필수적이다.

최현배(1955: 398)에 의하면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는 “하지 아니함(不爲)을 보이는 부정 보조동사”로 처리하고 '-지 아니하'를 묶어서 하나의 서술어로 다루고 있다. 제주 방언에서는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보다 '아녀⁶⁾' 형태가 빈번히 쓰인다. 이러한 장형 부정문의 통사·담화 특성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2.1. '아니하다'의 통사 특성

장형 부정문의 통사 구조를 보면 단형 부정문을 기저 구조로 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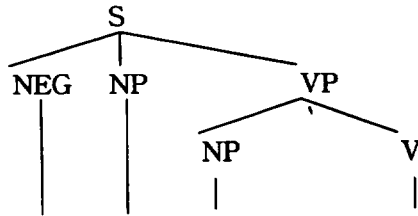
터 존재하는 부정문으로 고대 국어 특히 향가에 나타나며, 장형 부정문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고대 국어 후기로 보고 있다. 15세기에 두 부정문의 쓰임이 이미 보편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단형 부정문이 더 이전 형태임을 알 수 있다.

- 6) '아녀'는 '아니하+아'에서 '하'가 탈락되면서 '아냐'로 축약되었고 다시 '아녀'가 되었는데 이는 중세 국어에서부터 사용된 형태이다. 실제 발화 시에는 '아녀', '안하다'가 빈번히 쓰이지만 논의 전개상 '아니하다'를 기본형으로 정하고자 한다.

부정소의 이동이 나타나면서 동사 '하다'와 결합해서 서술어가 되었고, 일차 부정 대상은 선행 동사이지만 단형 부정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초점 위치에 따라 부정되는 대상이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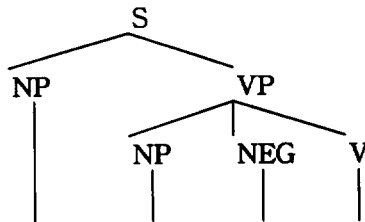
(1) 장형 부정문

가. 심층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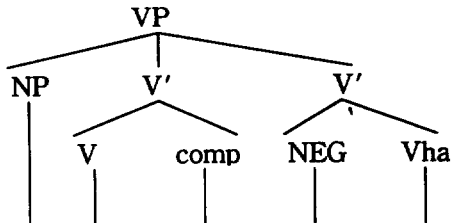


나. 표면구조

① 단형 부정문



② 장형 부정문



(1가)의 심층 구조에서 머리의 부정소가 동사 앞으로 이동하면 (1나, ①)처럼 단형 부정문이 되고, (1나, ②)처럼 부정소가 동사 뒤로 이동하면서 어휘 '하다'와 통합하면 장형 부정문이 된다. 따라서 장형 부정문과 단형 부정문은 심층 구조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 (2) 가. 난 이디 살지 아니햐키여.⁷⁾ (나는 여기에 살지 아니하겠다)
 나. 난 이제 좀 자지 아니햐켜.
 다. 방이 깨끗햐지 아니햐우다.⁸⁾ (----- 아니합니다)
 라. 그건 어렵지 아니햐우다
 마. 날이 어둡지 아니햐다.
 바. 방이 붉지 아니햐다.

(2)에서 '아니햐다'의 선행 요소로 상태 동사, 동작 동사 모두 허용하고 있으며, 부정 대상은 우선 선행 동사가 되고 있다. 이 때 부정소 '아니'는 단순 부정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2가, 나)에서 '아니햐다'는 동작 동사의 행동을 부정하고 있어서 단순히 행동을 멈추는 뜻으로 '단순 부정'으로 쓰이고 있으며, (2다 - 바)는 상태 동사를 선행 요소로 취하고 있어서 그 상태를 부정하고 있는 데, 상태 동사의 부정 기준은 객관적이라기보다는 화자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존해서 판단하기 쉽다.

다음에는 보문소 '-게'와 부정 서술어의 쓰임을 살펴보기로 하자.

- (3) 가. 즐겨 자게 아니햐리 (번노스, 46)⁹⁾

7) '-(으)크-'는 주어가 1인칭일 때 화자의 의도·의지나 추측을 뜻하는 제주 방언의 형태소이며, 표준어의 '-겠-'과 문법 기능이 같다(홍종림 1993 참조).

8) 형태소 '-우-'는 제주 방언의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이다.

9) 이 글에 인용된 중세 문헌 자료는 다음과 같다.

석보상절(석상), 월인천강지곡(월인), 변역노걸대(번노), 노걸대언해(노언)

나. 能히 이불 브르게 묻하면

(능엄경언해 1 : 32, 흥종선 1986 : 255)

다. 나가 떡을 먹게 아니했저.

라. 나가 책을 보게 못했저.

(3가, 나)는 중세 국어에서의 쓰임이고, (3다, 라)는 제주 방언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다. 보문소 '-게'는 부정 어휘 '말다' 앞에서도 쓰이는데(가이 가게 말라.), '아니하다, 못하다' 앞에서도 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세 국어의 용법이 아직도 제주 방언에 남아 있음을 보여 주는 좋은 보기이다.

(3가)에서 '아니하다'에는 화자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어서 '의지 부정'의 의미가 강하고, (3나)에는 '타의 부정'의 의미가 있다. (3다)도 주어가 의도적으로 '먹는 행동'을 막았다는 '의지 부정'의 의미가 있으며, 초점이 '나'에 놓이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먹게 했다, 또는 동작주 스스로 먹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3라)에도 주어가 대상(목적어)으로 하여금 '책을 보는 행동'을 막았다는 '의지 부정'의 의미로 해석된다. 즉 '일부러 못하게 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본다면 '-게 아니하다/못하다'는 사동 구문 '-게 ㅎ/못'의 부정으로 볼 수도 있다. 즉 '-게 ㅎ다'의 긍정 구조에서 부정소 '아니'와 '못'이 통합된 부정 구조와 같다. 사동 구문과 같기 때문에 이 보기들은 당연히 화자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의지 부정'의 의미가 강하지만 '-게 ㅎ다' 자체에 '의지'가 포함되었다고 본다면, 이 때의 '아니'는 '단순 부정', '못'은 '타의 부정'의 기본 의미로 쓰이고 있음은 물론, 주어의 의지·의도를 나타내는 종결어미에 '-저'가 쓰여서 '의지 부정'의 의미가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2.2. '아니하다'의 담화 특성

다음은 보기 (2)를 통해서 '아니하다'가 쓰인 부정문의 담화적인 특

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가)는 주어의 의지가 내포된 '의지 부정'으로 쓰이고 있는데, 의도의 '-(으)크-'가 있어서 그 의미가 강조되는 것 뿐이고 단순 부정으로 봐도 좋을 듯하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여기에 살기 싫다는 뜻이다. 이 문장에서 '살다'는 '머무르다, 거주하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살다'에 초점이 놓이면 '거주하는' 행위를 제외한 다른 행동은 할 수 있다는 뜻이다.

(2나)에도 '-(으)크-'가 쓰여서 화자의 의지 부정을 나타내고 있지만, 단순히 발화된 문장의 내용을 부정하고 있다. 즉 잠을 많이 자서 더 이상 잘 필요가 없다는 뜻이거나, 졸리기는 하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2다)는 '방이 더럽다'를 전제로 한다. 초점이 '방'에 놓이면 '방은 더럽고 다른 곳은 깨끗하다'는 뜻이며, '깨끗하다'를 부정하면 '더러운 정도'인데 이는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더럽다'는 표현보다는 완곡하고 그 정도가 가벼움을 알 수 있다. '깨끗하다'는 다음절어여서¹⁰⁾ 단형 부정문(*아니 깨끗하다)은 성립하지 않는데 장형 부정문에서는 성립함을 알 수 있다.

(2라)에는 '그 일은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는 화자의 가치 판단이 들어 있다.

(2다, 라)에서 '아니하다'는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단순 부정'이라 할 수 있다. 즉 '깨끗한 정도, 어렵지 않은 정도' 등에서 객관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개인차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10) 다음절은 하나로 된 음절이고(굽다, 출다), 이음절은 둘로 된 음절이며(비싸다, 어둡다), 다음절은 셋 이상으로 된 음절을 가리킨다(아름답다, 생각하다). 보통 다음절어라 하면 1~2 음절을 가리키고, 다음절어라 하면 3음절 이상을 가리킨다. 다음절 상태 동사는 단형 부정문의 성립에 제약을 받으며, 장형 부정문에서는 통사상의 제약이 없다.

(2마)는 화자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자연적인 현상이므로 역시 '단순 부정'의 '아니'로 파악할 수 있으며, (2바)도 '밝지 않은 것'이 화자의 판단과는 무관하므로 '단순 부정'으로 볼 수 있다.

(2마, 바)에서 '주어의 의지'는 배제되지만, 화자의 의사가 조금은 개입될 수 있는 것은 '어두운 정도', '밝은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다-바)에서 '더럽다, 쉽다, 밝다, 어둡다'라는 어휘보다 부정문으로 표현된 것은 화자의 의사가 부드럽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2)에서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는 '단순 부정'의 기본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단형·장형 부정문이 초점에 따라 부정되므로 다의성을 띠며 동일한 해석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부정소 '아니'는 형식상 후행 동사 '하다'를 부정하지만 의미상으로는 선행 동사를 부정한다. 초점이 중립일 때 단형 부정문에서도 '아니'는 후행 동사를 부정한다.

단형 부정문은 부정되는 내용이 단정적인 데 비해, 장형 부정문은 화자의 의사를 완곡하게 전달하는 심리적인 차이가 있다. 이것은 문장의 길이에 따라 화자의 의도를 강, 약으로 표현하려는 의식적인 발화로도 볼 수 있다.

3. 부정 서술어 '못하다'의 특성

위에서 논의한 '아니하다'와 더불어 부정 서술어 '못하다'도 부정소 '못'과 '하다'가 결합되어서 성립하며, '못'이 쓰인 단형 부정문보다 통사적인 제약을 덜 받는 데, 구체적으로 통사·담화 특성을 살펴보겠다.

(1955 : 397)는 부정 서술어 '못하다'는 "할 수 없음(不能)을 보이는 부정 보조동사"로 다루었다.

3.1. '못하다'의 통사 특성

- (4) 가. 난 문 열지 못^ㅎ켜.
 나. 나 먹^ㅎ습이 좋지 못^ㅎ다.
 다. 난 물^ㅎ을 타지 못^ㅎ해서. (나는 말^ㅎ을 타지 못^ㅎ했다.)
 라. 난 이 사^ㅎ를 즈들^ㅎ루지 못^ㅎ해서. (-----괴롭^ㅎ히지 못^ㅎ했다)
 마. ?날^ㅎ이 어들^ㅎ지 못^ㅎ다.
 바. *신^ㅎ선은 늙^ㅎ지 못^ㅎ다.
 사. *난 아프^ㅎ지 못^ㅎ했^ㅎ져. (--못^ㅎ했다)

(4가-라)에서 부정 서술어 '못하다'는 부정소 '못'과 같이 타의 부정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선행 요소는 '아니하다'와 마찬가지로 동작 동사, 상태 동사와 쓰이고 있음도 알 수 있다. (4다, 라)에 쓰인 '못해서'는 '못+ㅎ+어시+어'로 분석할 수 있다. 여기서 '-아시'는 완료 존속상이며, '-어'는 종결어미이다.

(4나)와 같은 상태성 서술어의 경우 단형 부정문에서 '못'은 그 능력 부정의 의미 특성을 강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지만(*못 좋다), 장형 부정문은 능력 부정의 의미 특성보다는 "어떤 상태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불급부정"(임흥빈 1987: 80)의 의미 특성을 보다 강하게 가져서 성립한다.

(2), (4)에서 보듯이 '아니하다'는 통사적인 제약이 없는 데 비해서 '못하다'는 조금은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단형 부정문에 비하면 거의 제약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아니하다'에는 '아니'의 의미가, '못하다'에는 '못'의 의미가 있어서 두 부정 서술어는 의미가 차이가 나타난다. 즉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 '못하다'의 기본 의미가 다르기도 하지만 선행 동사의 성격에 따라서 부정 서술어가 선택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 (5) 가. *못 곱닥하다(곱다) → *곱닥 못 하다/ 곱닥하지 못하다.
- 나. *못 따뜻하다(따뜻하다) → *따뜻 못 하다 / 따뜻하지 못하다.
- 다. *못 부치럽다(부끄럽다) → *부치럽지 못하다.
- 라. *못 거멍하다(거멍다) → *거멍 못 하다/ 거멍하지 못하다.
- 마. *못 노랑하다(노랗다) → *노랑 못 하다/ 노랑하지 못하다.
- 바. *못 퍼렁하다(퍼렁다) → *퍼렁 못 하다/ 퍼렁하지 못하다.
- 사. *못 벌경하다(벌경다) → *벌경 못 하다/ 벌경하지 못하다.
- 아. *못 하얗하다(하얗다) → *하얗 못 하다/ 하얗하지 못하다.

(5)에서 보면 부정소 '못'은 상태 동사 앞에 올 수 없으며, 부정소 '아니'처럼 '하다' 앞에 쓰일 수도 없다. 따라서 '못'은 동작 동사에 선행한다는 통사 특성이 제주 방언에도 적용됨을 알 수 있다. 물론 장형 부정문인 경우에는 상태 동사에 후행할 수 있다. (5다)에서 '부치럽다'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정적인 상태 동사여서 비문이 되고 있다.

- * (6) 가. 못 간세하다/ 간세 못 하다/ 간세하지 못하다.
- 나. 못 벤헛저/ 벤 못 헛저/ 벤하지 못헛저.
- 다. 못 문작문작하다/ 문작문작 못하다/ 문작문작하지 못하다.
- 라. 못 빈쩍빈쩍하다/ 빈쩍빈쩍 못하다/ 빈쩍빈쩍하지 못하다.

(6)이 비문인 것은 선행 요소의 특성에 기인한다. '간세하다(계으르다)'는 바람직하지 못한 부정적인 어휘여서 안되고, '벤하다'(변하다)는 변하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타의 부정'의 '못하다'와는 공기할 수 없다. 부사 상징어는 그 상태에 이르지 못함을 뜻하는 단순 부정은 가능하지만 못하게 하는 원인이 없으므로 비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통사적인 제약이 있는 것은 부정소 '못'의 의미에 따른 것이다.

부정소 '못'은 선행 요소가 [+동작]의 의미 자질을 갖고 있어야 하는 데 부정 서술어 '못하다'는 [-동작]이어도 가능하다. 따라서 단형

부정문에 비해서 동사의 선택에 제약을 덜 받는 장형 부정문이 더 생산적일 수 있다.

다음은 보조사와의 쓰임을 통해서 통사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7) 가. 善容이 對答호더 보도 묻호며 듣도 묻거니 (석상 24 : 28)

나. ㅋ 격도 크도 아니호고 (월인 1 : 26)

(8) 가. 여즈가 물 타 보도 아니헛다.

(여자가 말을 타 보도 아니헛다.)

나. 나신디 주도 안혀서 가부렀다.

(나에게 주도 안하고 가 버렀다.)

다. 업영 가도 못호고 (업어서 가도 못호고)

라. 이런 말은 어디 강 잘 듣도 못호여.

(이런 말은 어디 가서 잘 듣도 못한다.)

(7), (8)에서 보듯이 중세 국어, 제주 방언에서 보조사 '-도'와 통합될 때에 보문소 '-지'의 생략은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표준어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는 '-도'가 '또한, 역시'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보문소를 생략해도 문맥 의미에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장형 부정문에서 부정 보문소 '-지'가 생략되고 보조사 '-도'는 동사 어간에 직접 연결되는 특성이 있다. 그 외 다른 조사와의 통사 관계를 보면 (9)와 같다.

(9) 가. 이 배는 크지(가/를/는/만/도) 아너주/못호주.

나. 그 사름은 방안에 들어오지

(*가/를/는/만/도) 못혀서/아니혀서.

(9가)에서 '크다'라는 상태 동사는 여러 조사와 통합되는데, (9나)에서 조사 '-가'는 '들어오다'라는 동작 동사와는 통합하지 못하고 있다.

즉 '-가'는 상태 동사와만 통합하고 동작 동사하고는 통합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격조사라고 부르는 '-이/가'는 부정 보문소 '-지'와 결합되면서 “-이/가”는 정적인 상황과 관련되는 주제 표지를 나타내는 주제격”으로 보는 견해(임홍빈1973: 23)도 있다. 보조사와의 통합은 부정 서술어의 영향과는 무관하며, 선행구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각 조사의 의미 기능과 관계가 있다.

단형 부정문인 경우에는 “부정소+조사”의 쓰임이 불가능하나 장형 부정문에서는 가능하다. 즉 “동사+-지+조사+부정 서술어”가 성립한다. 이렇게 조사가 있을 때는 부정문의 의미가 분명해서 중의성이 배제되는데, 조사 개입이 없을 때는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장형 부정문만이 갖고 있는 특징을 중의성이라 하기가 곤란한 데, 이는 단형 부정문의 통사 구조 상 동사와 조사의 결합이 어렵기 때문이다.

장형 부정문에서 부정소 ‘아니’와 ‘못’은 형식적으로 후행하는 ‘하다’를 한정, 부정하지만 의미적으로는 서술어에 선행하는 본동사를 부정한다. 초점이 중립일 때에는 단형 부정문과 마찬가지로 동사가 부정되면서 문장 전체는 부정문이 된다.

3.2. ‘못하다’의 담화 특성

보기 (4)를 통해서 부정 서술어 ‘못하다’의 담화 특성을 보면 아래와 같다.

(4가)에서 ‘못하다’에는 타의 부정, 능력 부정의 의미가 들어 있으며, 의지의 ‘-(으)크-’가 있어서 화자의 거부 의지가 반영된 것처럼 여겨진다. 또한 화자가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거나, 문을 열기 싫어서 하는 발화일 수도 있다. (4나)는 부정 서술어가 상태 동사인 ‘좋다’에 후행하고 있는 데 화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 있어서 좋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 때 ‘못’은 타의 부정으로 볼 수 있으

며, 문장이 성립하는 것은 화자의 기준에 의한 평가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4다)에서도 ‘못’은 타의 부정이라 할 수 있다. ‘내가 말을 탈 수 없는 상황’이지만, 타기 싫을 때도 이 발화는 가능하다.

(4라)에서 선행 동사를 부정하면 주어가 대상을 괴롭히고 싶은 데 외부 원인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뜻이다.

(4마)에서 ‘날이 어둡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 현상이어서 어색하기는 하지만 보통 ‘어둡다’라고 했을 때의 기준이 가능하며, 화자의 판단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문장이 성립한다. 즉 어떤 일을 하려면 날이 어두워져야 하는데 아직 어둡지 않아서 시작할 수 없다는,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뜻이다.

(4바)에서 ‘늡다’는 인간의 의지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어서 ‘늡는’ 이유가 없기도 하지만, ‘신선’은 ‘늡지 않는다’는 고정 관념이 있기 때문에 비문이 되었다.

(4사)에서 인간은 보편적으로 질병을 원하지 않으므로 화자가 거부하거나, 아프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타의 부정’의 서술어 ‘못하다’와는 통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4마, 사)에서 ‘못하다’가 쓰이지 못하는 것은 부정소 ‘못’에는 ‘완성, 가능성, 긍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늡다, 아프다’는 외부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 타의 부정으로는 쓸 수가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비문이 된 것은 “화자가 원하는 상태가 아닌, 바람직하지 않은 뜻을 가진” 상태 동사이기 때문이다 (김동식 1980 : 76). 김동식의 정의보다도 ‘늡다, 아프다’는 자연 발생적인 현상이지 화자의 의지나, 주변 상황에 의해서 그 원인이 제거될 수 없는 상태 동사이다. 그래서 화자의 능력이나, 거부가 반영될 수 있는 어휘가 아니다. 따라서 인간의 의지로는 어쩔 수 없는 자연 현상을 뜻하는 상태 동사일 때는 부정 서술어 ‘못하다’와 통합할 수 없음

을 알 수 있다. 여기서도 ‘못하다’는 상태 동사와 통합하는데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못’의 의미는 단형 부정문에서의 의미와 같음을 알 수 있다.

4. 부정 보문소 ‘-지’의 통사 기능

장형 부정문에서 논의의 쟁점이 된 것 중의 하나가 부정 보문소 ‘-지’의 기원설 즉 ‘명사화소나, 보문소나?’이다. 명사화소로 보는 입장은 ‘-기’와 동일 기원으로 보고, 보문소로 보는 입장은 ‘-기’와 다르다는 것이다.

보문소 ‘-지’¹¹⁾의 선행 동사와 부정 서술어는 한 덩어리의 서술어이므로 여기서 ‘-지’는 명사화소 ‘-기’와는 그 기능이 다르다. 물론 보문소 ‘-지’에 목적격조사가 결합되어서 목적어가 될 수 있지만, 조사와의 결합은 선택적인 것이어서 그 선택이 필수적인 것처럼 ‘-기’와 ‘-지’의 동일 기능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명사화소 ‘-기’와 보문소 ‘-지’가 동일 기원설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지만, 표준어에서의 문법적인 기능으로 보아서 두 형태소의 기능이 다르다는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10) 가. 므스거시 가져가디 ㄷ홀고, (번노下 66)
- 나. 므스거시 가져가기 ㄷ홀고, (노언下 59)
- 다. 네 ㄱ장 일 가기 말라. (번노上 26)
- 라. 네 ㄱ장 일 가디 말라. (노언上 24)

11) 부정 보문소 ‘-지’에 대한 관점으로는 크게 전통 문법에서 부사형 어미로 보는 쪽과(최현배 1955), 변형문법론자들에 의해서 보문소(송석중 1967, 1977)나 명사형 어미(임정호 1987, 이흥배 1970, 오준규 1971)로 보는 입장, 보문자(서정수 1994, 임흥빈 1987. 그런데 임흥빈 1973에서는 종결어미로 봄)로 보는 입장 등이 있는데, 이 글에서는 ‘보문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중세 국어에서 명사화소 '-기'와 보문소 '-디'의 혼용을 볼 수 있는데, 부정 서술어 '말다' 앞에서 '-기'가 쓰인다고 해서 두 형태소의 동일 기원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고영근(1987: 127)은 '-기'와 '-디'를 명사형 어미로 보고 있으며(보문소 '-디'와 다르게 봄), "'-디'는 '-기'와 비슷한 기능을 표시하는 명사형 어미인데 형용사인 '어렵다, 슬하다, 뚱다' 앞에서만 쓰이는 통사상의 특징"으로 다루고 있다. 그 보기를 인용하면 (11)과 같다.

- (11=10가) 가. 내 겨지비라 가져가디 어려볼씨 (월석 1: 13)
 나. 나가디 슬하야 (삼강행실도 열너도 16)
 다. 2장 보디 도하나라. (번박상 5)

그렇다면 부정 서술어 앞에 쓰인 '-디'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디'는 부정 보문소인데 몇몇 어휘 앞에서는 부정 서술어가 아니지만 '-기' 대신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어렵다, 슬하다'는 부정적인 어휘여서 '-디'가 선택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뚱다'는 (10)에서 보듯이 명사화소 '-기'와 보문소 '-디'가 혼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세 국어에 나타나는 몇몇 어휘에 '-기'와 '-디'가 혼용된다고 해서 동일 기원설은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디'가 '-지'로 변하면서 그 쓰임이 명확히 구분되어서 표준어에까지 쓰였다고 생각된다.

이승욱(1990: 788)은 부정 서술어를 제외하고 중세 국어에서 보문소 '-디'와 통합하는 후행 동사로 '어렵-/쉽-/뚱-/슬-/아절-' 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디'에 후행하는 동사의 특수성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기'와 '-디'의 동일 기원설은 점점 멀어지게 된다. 왜 '-디'가 '-기'로 변했는지는 모르지만, 몇 어휘는 '-지'와 공기하면서 제주 방언에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12) 가. 난 일하지 기롭다/ 실프다.

(나는 일하고 싶다/ 일하기 싫다)

나 난 느 보래지 기롭다/ 실프다.

(나는 너를 보고 싶다/--- 보기 싫다)

다. 먹지 그려완 왓저. (먹고 싶어서 왔다)

라. 요새 살지 굿다. (요사이 살아가기 어렵다)

마. 켈기 잠지 어렵다. (고기 잠기 어렵다)

정승철(1994 : 47)은 제주 방언에서 “동명사형 어미 ‘-기’ 대신에 ‘-지’가 쓰이는 보기로 ‘가지 실프다, 듣지 실프다’ 등 ‘실프다’ 앞에서만 결합된다”고 보았는데, (12)에서 보듯이 ‘기롭다, 굿다, 어렵다’ 앞에서도 ‘-지’가 실현됨을 알 수 있다. ‘실프다’에 선행하는 ‘-지’의 원형을 ‘-디’로 볼 수 있는 데, 이는 (11)에서 ‘슬ㅎ다’ 앞에 ‘-디’가 쓰인 것과 같다. 따라서 제주 방언 ‘실프다’가 보문소 ‘-지’와 공기하는 것은 통시적인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중세 국어에서 ‘슬ㅎ다’는 ‘슬프다, 싫다’는 뜻인데, 제주 방언에서는 아직도 ‘싫다’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이 ‘실프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어휘로써 부정 응답에서 ‘말다’로 대체되기도 한다. 이렇게 본다면 이 ‘-지’도 부정 보문소로 볼 수 있다. 제주 방언에서 ‘기롭다(그렵다)’는 ‘~(하고) 싶다’는 뜻의 보조 용언이다. 중세 국어인 그리다(그렵다)가 제주 방언에서 쓰이는 것은 화자의 ‘~하고 싶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중세 국어의 의미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긍정 어휘 앞에서도 보문소 ‘-지’가 쓰이는 것은 ‘기롭다’에서의 ‘기’와 명사화소 ‘-기’의 음상이 같아서 음운 회피 현상으로 본다면, 제주 방언에서도 ‘-기’와 ‘-지’의 혼용을 알 수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음운 변화 현상이지, 보문소 ‘-지’와 명사화소 ‘-기’의 혼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정도의 쓰임으로는 동일 기원설을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생

각된다. 제주 방언 ‘긱다’는 ‘어렵다’는 뜻으로 쓰이는 데, (11)에서 보듯이 중세 국어에서도 ‘-디’가 ‘어렵다’와 공기하는 것으로 봐서 이는 중세 국어의 잔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12라, 마)의 ‘긱다’, ‘어렵다’에 ‘-지’가 선행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11),(12)에서 보듯이 보문소 ‘-지’와 공기하는 어휘는 통시적임을 알 수 있다.

표준어 부정 보문소 ‘-지’에 해당하는 중세 국어 보문소에는 ‘-디’, ‘-들’이 있는 데, ‘-디’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서 ‘-지’로 변하였고, ‘-들’은 표준어에서는 쓰이지 않지만 제주 방언에는 아직도 쓰이고 있다.

(13) 가. 님 더브러 드토들 아니호노이다. (석상 11 : 34)

나. 님량엿 해물. 그치들 몰호야 (월인 7 : 45)

(14) 가. 나가 조진호고 역불로 들어오들 아니해서.

(내가 자진했지, 일부러 오지 아니했다.)

나. 그 자리를 떠나들 못해서.

다. 떡 먹들 말라. (떡을 먹지 말라)

(13는 중세 국어의 보기이고, (14)는 제주 방언의 보기인 데 보문소 ‘-들’이 부정 서술어 ‘아니호다’, ‘못호다, 말다’와 공기함을 알 수 있다. 역시 제주 방언 통사 특성에는 중세 국어의 통사 특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거의 사라져가는 표현이며, 표준어에 더디게 동화되는 통사 특성일 뿐이다. (14)는 노년층에서 주로 쓰이는 문장이며 젊은층으로 내려올수록 쓰이지 않는다. 현장 조사시 확인 결과 ‘-들’과 ‘지를’의 축약형 ‘-질’이 혼용됨을 알 수 있었고, 제주 방언 언중들은 두 형태에 대한 구별 의식이 없이 사용하는 것 같았다.

남풍현(1976 : 59)에서는 “아이가 자들 않는다.”처럼 중부 방언의 노년층에서는 보문소 ‘-들’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신창순(1971 :

11)은 경상도 방언에서도(가지를 못하고 → 가들 못하고) '-들'의 쓰임이 있다고 했다. 두 방언을 보더라도 어간에 '-들'이 직접 연결되는 형태가 아직까지 여러 방언에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중세 국어의 잔영이 타 방언에 비해서 제주 방언에 많이 남아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디', '-덜'은 주로 부정하는 말 뒤에 오는 부정 보문소이며 동사 어간에 바로 통합됨을 보여 주고 있다.

5. '하다'의 문법적 기능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 '못하다'에서 부정소를 제거하면 '하다'가 남는데 이 때 '하다'의 문법적인 기능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표준어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어서 여기서는 문법적인 기능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자 한다.

동사 '하다'는 본동사, 보조동사, 형식동사, 대동사, 접사, 포괄동사 등 문법적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었다.¹²⁾

부정 서술어인 경우 거의 선행 동사와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 사이에 다른 문장 성분의 개입이 불가능해서 하나의 덩어리인 서술어로 인식되고 있다. 파생동사에서 명사가 자립성을 띠므로 '하다'가 본동사로 기능하는 것처럼, 부정소 '아니', '못'도 자립형태여서 부정소와 결합하는 '하다'도 일반 동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장형·단형 부정문에서 부정소의 후행 요소는 동사이다. 부정소는 동사에 선행하는데, '돌아가가, 좋아하다'처럼 합성어인 경우에는 부정소가 이 합성동

12) 부정 서술어에 있는 '하-'를 기저에서 주동사로 인정하기도 하고(송석중 1967, 이흥배 1970), 형식동사로 취급하기도 하였으며(박순함 1967, 오준규 1971, 서정수 1975, 1994), 대문용언으로 처리하기도 하여(임흥빈 1973)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었다.

사 앞에 위치하는 것으로 봐서(안 돌아가다, 안 좋아하다) 부정소와 결합하는 '하다'는 동사임을 알 수 있다. 부정소가 부사이므로 동사를 한정하는 기능이 있다. 그런데 부정문의 특성상 부정소 '아니', '못'이 후행 동사 '하다'와 통합하여 복합어처럼 보이며, 부정 서술어이기 때문에 부정 대상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하다'는 일반 동사처럼 온전하지는 않지만 본동사로 보아서 형식동사, 대동사의 기능을 포괄하는 '포괄동사'¹³⁾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 (15) 가. 밥을 안 먹기는 헛저.
 나. 물을 안 피헛저. (말을 안 피헛다.)
 다. 물이 안 탁해서.
 라. 난 여기 살지 아니헛켜.

(15가)에서 '헛저'는 '안 먹었다'를 대신하고 있다. 즉 '부정소+동사'를 대신하고 있다. (15나, 다)가 성립하는 것은 '피하-, 탁하-'로만 쓰여서 '피, 탁'은 자립성이 없는 의존 형태여서 가능하다. 따라서 '하다'가 자립성을 띤 명사와 결합할 때 이 '하다'는 일반 동사이다. (15라)에서 '헛다'는 '살다'라는 선행 동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부정소 '아니'와 결합되면서 '아니헛다'는 '안 살다'의 뜻으로 변했다.

국어의 특성상 수식어는 피수식어 앞에 오므로 장형 부정문에서 부정소 '아니', '못'은 동사 '하다'에 선행하며 '하다'를 수식하고 있어

13) 김영희(1984 : 31)는 포괄동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다. “‘하다’가 대동사의 기능을 갖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실질 어휘로서 내포 의미에 있어서 구체적 의미 자질이 극히 적은 반면에 외연 의미는 극히 넓은 동사”라 하고 있다. 즉 ‘하다’는 다른 실질 동사처럼 의미, 기능면에서 완전한 독립성은 부족하지만, 실질 동사를 포괄하여 대신할 수 있는 포괄동사로 보고자 한다.

형식동사, 대동사는 문법적인 기능에 초점을 둔 용어이며, 포괄동사는 의미에 중점을 두긴 했지만 문법 기능면에도 초점을 두었다.

서, 이 때의 '하다'는 선행 동사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하다'가 문법 기능이 다양한 것은 선행 요소와의 결합이 다양하다는 것이며, 때에 따라 본동사, 형식동사, 접미사 등의 기능을 하는 것은 여러 개의 문법 범주로 다루기보다는 하나의 문법 범주로 묶듯 그려서 다루는 것이 효율적이어서 '포괄동사'라 했다.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 '못하다', '말다'와 선행 동사 사이에 조사를 삽입할 수 있는 것으로 봐서 이들은 본동사임을 알 수 있으며, 여기서 부정소와 분리 가능한 '하다' 역시 동사임을 짐작할 수 있다. 부정 서술어에서 '하다'가 일반 동사인 데 파생접사처럼 기능하며, '하다' 자체가 동사에서 보조동사, 접미사로 문법화되었는데, 그 기능이 분명하지 않고 중간 범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한 문장에서 다른 문법 기능이 있는 것이다. '하다'가 일반 동사처럼 의미나 문법 기능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선행 요소의 자립성 유무에 따라 그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

6. 부정의 범위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글에서는 두 유형의 부정문이 동일함을 전제로 하지만 이원론의 입장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원론의 입장에서 임흥빈(1973, 1978)은 단형·장형 부정문의 의미가 다른 것은 빈도 부사, 수량어 등이 있을 때를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수량어, 빈도 부사는 한정 대상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런 요소를 갖고 두 부정문의 의미 차이를 규정하는 것은 정확한 기준이라 하기가 곤란하다.(임흥빈 1987에서는 단형 부정문의 중의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흥빈(1973)은 부정의 범위에서 단형 부정문인 경우 '아니'는 후행 동사만을 한정하는 데, 장형 부정문은 부정 서술어가 선행 성분을 초

점에 따라 부정할 수 있어서 중의성을 띤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두 부정문 모두 초점에 따라 부정되는 내용이 달라진다.

- (16) 가. 난 즈주 안 놀았저. (나는 자주 안 놀았다.)
나. 난 즈주 놀지 안았저.

(16)에서 빈도 부사 '즈주'가 쓰였지만 두 부정문의 뜻은 같다. 즉 '나는 놀긴 놀았는데 자주 논 것이 아니고 가끔씩 놀았다.'는 뜻이다. '즈주'는 후행 동사를 한정하고 있다.

(16)의 통사 구조를 분석해서 부정의 범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7) 가. [난 [안 [즈주 놀았저]]] / [난 즈주 [안 놀았저]]
나. [난 [즈주 놀지] 안았저] / [난 [즈주 [놀지 안았저]]]

따라서 단형·장형 부정문의 의미가 동일함을 알 수 있으며, (16)의 긍정문은 '난 즈주 놀았저.'이다. 즉 동일 긍정문에 대한 두 유형의 부정 형식이 있음을 보여준다.

- (18) 가. 난 밥 하영 안 먹었저. (나는 밥을 많이 안 먹었다.)
나. 난 밥 하영 먹지 안았저.

- (19) 가. [안 [하영 먹었저]] / [하영 [안 먹었저]]
나. [하영 [먹지 안았저]] / [[하영 먹지] 안았저]

(18)의 긍정문은 '난 밥 하영 먹었저.'이며, '하영(많이)'인 수량어가 쓰인 부정문의 두 형식이다. 물론 초점이 중립일 때에는 '나는 밥을 먹기는 먹었지만 많이 먹지 않고 조금만 먹었다.'라는 뜻이어서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부정의 범위를 보인 통사 구조는 (19)

와 같다.

그러나 수량어나 부사 등이 있으면 부정 범위가 달라지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이것은 단형·장형 부정문 모두 적용된다. 수량어, 부사 등이 부정사의 범위 속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부정 범위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따라서 이런 요소를 제거했을 때 단형·장형 부정문은 동일 의미 해석이 가능하다. 부정문의 중의성은 두 유형의 부정문의 기저 구조와 관계없다. 그러므로 수량어나 부사가 있을 때 중의성을 띤다고 해서 두 부정문의 뜻을 다르게 처리할 수는 없다.

송석중(1973, 1993)도 이원론을 주장했다. 장형 부정문에서 보문소에 보조사가 첨가될 수 있는데, 송석중(1993:106)은 보조사의 쓰임이 필수적인 것으로 봐서 두 유형의 부정문은 동이가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보조사의 첨가는 문맥 의미에 따라 선택되는 것이어서 필수 성분은 아니다. '비가 오기를 한다/ 비가 아니 오기를 한다/ 비가 오지를 아니한다'에서 긍정문에 격조사가 결합된 문장을 기본 문장으로 설정해서 두 부정문의 구조와 의미의 상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단형 부정문도 장형 부정문처럼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단형 부정문은 단일 의미로 해석되고, 장형 부정문은 중의성을 띤다고 보는 것은 각 문형의 논항 수가 다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두 부정문은 한 성분만을 부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어진 문장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

- (20) 가. 난 집이 안 가고프다. (난 집에 안 가고 싶다.)
나. 난 집이 가고프지 아녀다.
다. 학생을 못 ㄴ리치켜. (학생을 못 가르치겠다)
라. 학생을 ㄴ리치지 못햏켜.

(20가, 나)에 대한 긍정문은 '나는 집에 간다.'이며, '~프다'는 '~싶다'는 뜻의 보조 용언이다. (20다, 라)의 긍정문은 '학생을 가르친다'여서, (20)의 두 형식의 부정문의 의미에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일원론의 견해에 동의한다.

이상에서 표면 구조가 다르지만 동일한 해석이 되는 것은 동일한 심층 구조를 가졌기 때문이며, 앞에서 제시한 두 유형의 부정문의 동일 구조설을 입증한 셈이다. 제주 방언에서도 두 유형의 부정문은 동의성을 띠며 표면 구조가 다를 뿐임을 알 수 있다.

7. 결 론

이 글은 제주 방언의 장형 부정문을 공식적으로 기술하여 표준어의 문법 체계와 제주 방언의 문법 체계간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통시적인 고찰도 아우르며, 또한 제주 방언에 나타나는 장형 부정문에 대한 형태·통사·의미 특성 등을 밝히고, 소박하게나마 제주 방언의 장형 부정문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중세 국어의 잔재가 제주 방언에 남아 있지만 거의 표준어에 동화되었고, 장형 부정문은 표준어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보편성을 구명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제주 방언이 표준어와 전혀 다른 독자성을 갖는다고보다는 언어의 역사성 속에서 더디게 변화되어 왔음을 밝히고자 했다. 장형 부정문에 관해서 표준어에서는 많은 논란거리가 되어 왔는데, 제주 방언에서의 연구 결과는 없다. 이렇게 방언 부정문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원인은 방언의 부정 현상이 표준어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장형 부정문의 의미·통사·담화 특성을 살펴본 결과 제주 방언과

표준어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즉 '단순 부정', '타의 부정'의 기본 의미와 부정 서술어의 통사 특성이 같으며, 두 부정문이 동일하다는 일원론임도 알 수 있었다. 다른 점이라면, 보기 (3)과 같이 보문소 '-게'와 부정 서술어의 쓰임이 표준어에 비해서 보편적인 것과, 보기 (12)처럼 보문소 '-지'의 원형인 '-디'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 보기 (14)처럼 중세 국어에 쓰였던 부정 보문소 '-둘'이 쓰인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교량적인 역할은 방언이 담당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참고 문헌>

- 강정희(1988), 제주방언연구, 한남대출판부.
고영근(1987), 표준 중세 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김동식(1980), 현대국어 부정법의 연구, 국어연구 42, 국어연구회.
——(1990), “부정법”,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김영희(1984), “하다; 그 대동사설의 허실”, 배달말 9, 배달말학회.
남풍현(1976), “국어 부정법의 발달”, 문법연구 1, 문법연구회.
문순덕(1988), “제주 방언의 단형 부정문 소고”, 언어학 연구3, 제주언어학회.
박병채(1989), 국어 발달사, 세영사.
박순함(1967), A Transformational Analysis of Negation in Korean, Ph. D.Diss.(The University of Michigan, 백합출판사, 1972)
박정규(1995), 국어 부정문의 의미와 통사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서정수(1974), “국어의 부정법 연구에 관하여: 변형 생성 문법적 분석 연구를 중심으로 문법연구회.
——(1975), 동사 ‘하’의 문법, 형설출판사.

- (1994), 국어문법, 뿌리깊은나무.
- 송석중(1967), Some Transformational Rules in Korean, ph. D. Diss.(The University of Indiana)
- (1973), “Some Negative Remarks on Negtion in Korean”, 어학연구 9-2, 서울대 어학연구소.
- (1977), “부정의 양상의 부정적 양상”, 국어학 5, 국어학회.
- (1981), “한국말의 부정의 범위”, 한글 173·174, 한글학회.
- (1993), 한국어 문법의 새 조명 : 통사 구조와 의미 해석, 지식산업사.
- 신창순(1971), “한국어의 부정”, 조선학보 58, 조선학회(일본 천리대).
- 엄정호(1987), “장형 부정문에 나타나는 ‘-지’에 대하여”, 국어학 16, 국어학회.
- 오준규(1971), “On the Negation of Korean”, 어학 연구 7-2, 서울대 어학연구소.
- 이기용(1979), “두 가지 부정문의 동의성 여부에 대하여”, 국어학 8, 국어학회.
- 이승욱(1990), “중세어의 ‘-(으)ㅁ’, ‘-기’ 구성 동명사의 사적 특성, 이정 정연찬 선생 화갑 기념 논총 III.
- 이흥배(1970), “on negation in korean”, 어학연구 6-2, 서울대 어학연구소.
- 임흥빈(1973), “부정의 양상”, 논문집 5, 서울대 교양과정부(인문사회과학편)
- (1978), “부정법 논의와 국어의 현실”, 국어학 6, 국어학회.
- (1987), “국어 부정문의 통사와 의미”, 국어생활 10, 국어연구소.
- 장석진(1985), 화용론 연구, 탑출판사.
- 전병래(1984), 한국어 부정구조의 분석 : 변형·생성문법적 고찰, 한신문화사.

영주어문 제1집(1999)

정승철(1994), 제주도 방언의 통시음운론,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최현배(1955), 우리말본, (수정판) 정음사.

홍종선(1986), 국어 체언화 구문의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홍종림(1993), 제주방언의 양태와 상, 한신문화사.

황병순(1980), “국어 부정법의 통시적 고찰”, 어문학 40, 한국어문학회.

허 옹(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현평효(1985), 제주 방언 연구, 이우출판사.

Givon. Talmy(1979), On understanding Grammar, New York :
Academic Press. (이기동 역(1981), 「문법이해론」, 범한서적
주식회사.)

Stephen C. Levinson(1983), Pragma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이익환·권경원 역(1992), 「화용론」, 한신문화사.)